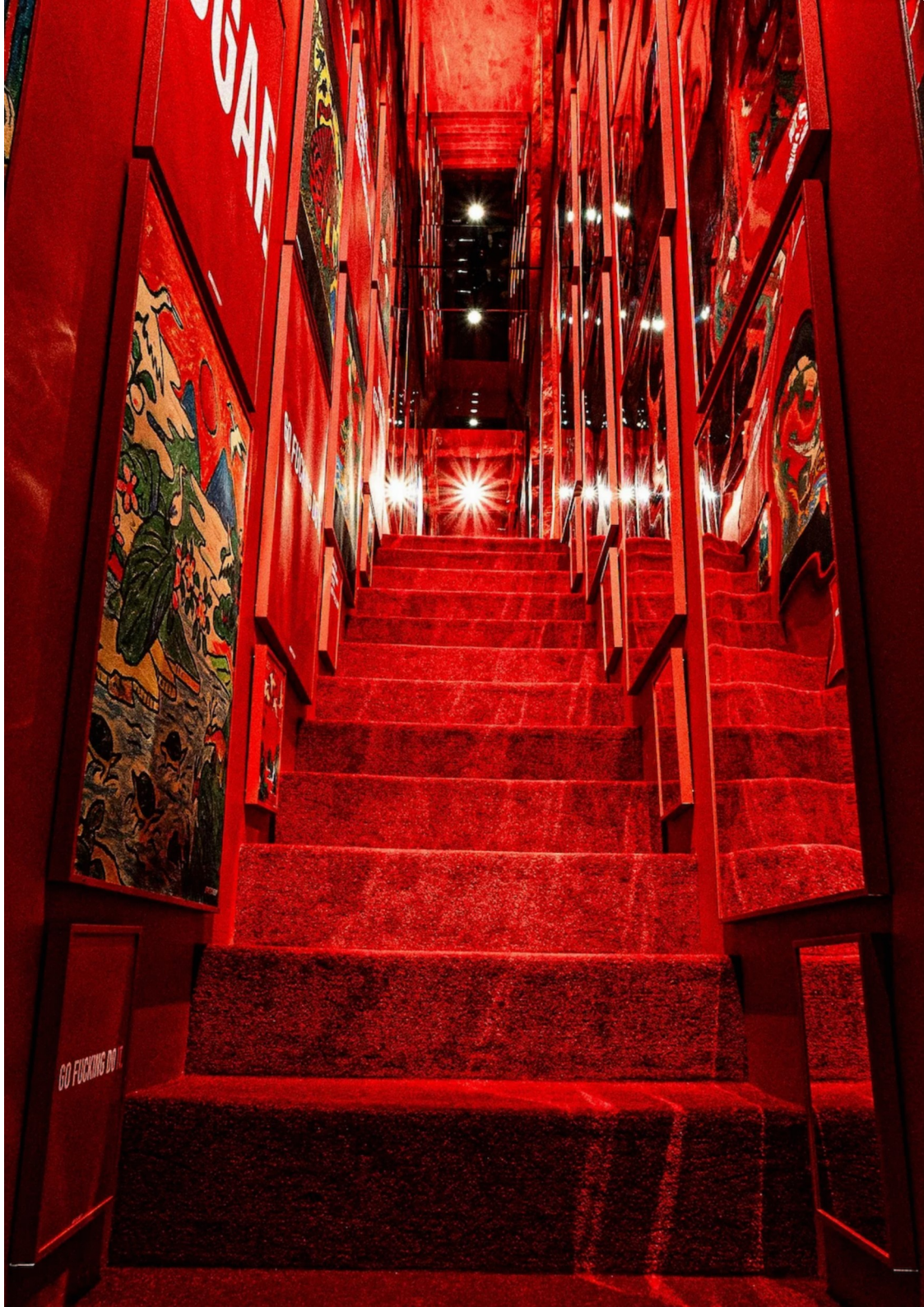




삼청동

향수

스토어

투어

BORN  
TO  
STANDOUT  
NONFICTION  
DANIEL'S  
TRUTH

본투스탠드아웃

논픽션 삼청&기프트샵

다니엘트루스 퍼퓸하우스

## 삼청동 향수 스토어 투어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킨케어 중심이던 한국 뷰티 산업은 이제 향이라는 감각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때 해외 브랜드가 압도적이었던 향수 시장에서도 한국의 니치 향수 브랜드들이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무대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향의 성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삼청동이다. 감각적인 시그니처 향을 찾으려는 이들이 모여들면서, 삼청동은 지금 '향수의 거리'라 불릴 만큼 새로운 향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 본투스탠드아웃 플래그십 삼청

📍 서울 종로구 삼청동 69

전통이 짙게 배어 있는 삼청동 한복판에 들어서면, 묘하게 이질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붉은빛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본투스탠드아웃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와 기준에서 벗어나 '다르게 존재하는 용기'를 이야기해온 브랜드답게, 이 공간은 삼청동 특유의 고즈넉함 속에 강렬한 반향의 기운을 새겨 넣었다.

1층은 마치 갤러리처럼 구성되어 있다. 향수 병 하나하나가 조각 작품처럼 놓여 있고, 향에 담긴 서사와 감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오브제들이 시선을 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붉은 실로 감싸인 조형물, 도자기 오브제, 새장 등이 어지럽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억압과 해방, 파열과 균형이라는 브랜드의 키워드를 은유적으로 풀어낸 장면들이다.



### 다니엘트루스 퍼퓸하우스 삼청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72

다니엘트루스 삼청점은 향을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 독특한 곳이다. 브랜드가 강조하는 고농도 오일 퍼퓸, 그리고 향을 겹쳐 쌓아 자신만의 무드를 만드는 레이어링 철학을 공간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이곳에서는 예약자에 한해, 향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휴(休)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

휴(休) 클래스의 첫 번째 공간에서는 조향사가 영감을 받았던 순간을 표현한 영상과 함께 다양한 향을 경험한다. 고객들은 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시향을 하며, 마치 영상 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각자의 별자리에 맞는 향이 담긴 시향지와 점괘가 적힌 타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예약 시 미리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서, 맞춤형 향과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커튼으로 가려졌던 공간으로 들어가면 칵테일 클래스가 시작된다. 칵테일 또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향에 따라, 취향에 알맞은 조합으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 논픽션 삼청&기프트샵

📍 서울 종로구 북촌로5길 84 1, 2층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삼청동 언덕 끝에 자리한 논픽션은 조용한 몰입의 시간을 선물하는 장소다. 브랜드가 추구해온 '차분함, 절제, 일상의 영감'이라는 키워드가 매장 전체에 은근하게 스며들어 있다. 1층 기프트샵은 깨끗한 백색 톤을 바탕으로 향의 이야기를 식물적 이미지로 풀어낸 아트워크들이 놓여 있어, 향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향수뿐 아니라 향초, 바디 제품, 작은 리빙 소품까지 갖춰져 있어 선물 아이템을 고르기도 좋다.

2층 쇼룸은 서재처럼 꾸며져 있다. 자연광이 길게 들어오는 공간 한가운데 책, 오브제, 플라워 등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곳에서는 향수를 고르는 행위가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삼청동의 고요함과 논픽션 특유의 미니멀한 감성이 만나 완성되는 분위기 덕분에,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르는 매장으로도 유명하다.